

현대중공업 009540

유상증자 관련 컨퍼런스콜 정리

조선/기계

Analysts 김현
02-6098-6699
hyun.kim@meritz.co.kr

현대중공업, 총 1조 2,8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현대중공업, 운영자금 8,690억원과 기타자금 4,185억원의 자금조달을 위해 총 1조 2,8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함. 신주 발행가액은 103,000원, 신주 발행주식수는 1,250만주로 예정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할 계획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2018년 3월 27일로 계획함.

유상증자 목적: 차입금 상환을 통한 경영개선과 향후 R&D 투자 계획

2017년 조선 업황은 회복되고 있으나, 조선업 전반의 신용등급 하락과 신규계약 선박에 대한 금융기관의 RG발급 제한 및 여신축소 우려가 존재함. 현대중공업은 경영개선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실한 경영개선을 목표함.

조달한 자금은 단기적으로 차입금 상환을 통해 경영개선을 목표하고, 장기적으로는 ICT 스마트기술에 2,300억원과 LPG 및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에 1,900억원의 R&D 투자를 계획함. 특히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R&D에 1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 초기 2년 내에 40%가 투자될 예정임.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15조 3,765억원, 영업이익 469억원 전망

현대중공업은 2017년 연결 기준 매출액 15조 3,765억원, 영업이익 469억원을 전망함. 2017년 4분기 별도 기준 현대중공업의 매출액은 2조 3,087억원, 영업손실 1,547억원을 예상함. 영업손실은 환율하락과 강재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1,025억원과 매출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438억원이 반영됨.

2018년 매출액 13조 6,000억원(-11.6% YoY), 수주 165억달러(+45.1% YoY) 전망

2018년 현대중공업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조 6,000억원(-11.6% YoY)으로 전망하며, 매출감소는 2016년 수주 부진에 따라 발생할 예정임. 연간 신규수주는 165억달러를 목표하며, 부문별 수주는 조선 132억달러, 해양 16억달러, 플랜트 4억달러, 엔진 13억달러로 구성됨.

2017년 9월 이후 수주잔고 턴어라운드와 주력 선종 업황 회복에 따라 2018년 10~15%의 선가인상을 기대함. 해양플랜트 부문에서는 유가상승에 따라 지연된 프로젝트의 발주재개가 확인되며, 2~3개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전망함.

▶ Q&A

Q) 차입금 상황과 R&D 비용 등 구체적인 자금 사용목적은?

A) 17년 11월 말 기준 현금 2.5조원, 차입금 잔액 4조원, 순차입금 1.4조원 존재. 해외법인 매각 등으로 영업수지 0.7조원이 유입될 예정이나, 경상비용 1.2조원과 차입금 상환 0.8조원, 이월 자금 2.5조원에서 발생하는 0.5조원의 추가자금 소요를 감안하면 18년 영업수지는 1.8조원 부족이 예상됨. 이번 유상증자는 원활한 차입금 롤오버에 0.9조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위해 0.4조원을 사용할 계획임.

Q) 순차입금이 1.4조원인데, 유상증자를 1.3조원을 하는 이유는 무차입경영을 목표하는지 여부와 신주발행 주식 수는 고정된 건지?

A) 유상증자를 통해 순차입금은 거의 없어질 예정이며, 18년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증자를 결정함. 신주 발행주식수 1,250만주는 확정됨.

Q) 저가수주로 인한 리스크로 증자하는 건 아닌지 여부와 18년 선가인상 가능성은 원가인상분을 감안했을 때 흑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선가인상을 뜻하는지?

A) 당장 롤오버가 안되거나 기타 리스크에 따른 유상증자는 아니고, 향후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순차입금 최소화를 목표함. 환율 영향과 후판 가격 인상, 또 클락슨 전망에 따르면 18년 발주물량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8년 선가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점진적 선가인상을 예상하며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선가인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Q) 18년 1분기에 큰 규모의 자금 상환 가능성이 있는지?

A) 자금 스케줄에 따르면 1분기 내에 큰 규모는 없음.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자금 소요가 확대될 전망.

Q) 4분기 영업적자 세부내역은?

A) 연결기준 영업이익 469억원이지만, 4분기 영업손실은 약 3,100억원 규모로 예상. 공사손실충당금은 현대중공업 1,020억원, 현대삼호중공업 1,800억원, 현대미포조선은 200억원 수준임. 환율하락과 강재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했음.

Q) 하이브리드, LPG 추진시스템 투자는 환경규제에 앞서 선주들의 요구로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건지?

A) 단기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19년 이후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함.

Q) 현대미포조선의 4분기 적자원인과 18년 전망은?

A) 4분기 별도 기준 372억원 영업적자 예상. 적자는 공사손실충당금 29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임. 내년은 올해보다 매출증가가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17년 79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흑자가 전망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2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2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